

어느 붕어빵 장수의 하소연 ... 마트 장사 조금이나마 보태보려했는데 영업허가 내고, 장소도 지하에서만 하라니...



“붕어빵 장사를 좀 한다고 영업허가를 별도로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장소까지 지정해서 지하에서만 하라고 하니 정말 너무 합니다.”

간성을 삼익아파트 인근에서 남편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옥씨(50세)가 지난

16일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해왔다.

김씨는 마트 장사에 조금이라도 보태보겠다는 생각으로 2년 전부터 붕어빵과 오징어 등을 팔아왔다. 그런데 지난 여름 누군가 영업허가도 없이 붕어빵을 판다고 고발해, 결국 보건소

에 분식집 허가를 추가로 내야 했다.

그렇게 장사를 해오던 김씨는 최근에는 보건소로부터 1층에서 하지 말고 지하에서만 붕어빵을 팔라는 통보를 받았다. 분식집으로 허가된 지역이 지하1층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씨는 이에 따라 현재 지하 1층에서만 붕어빵을 팔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허가를 별도로 내고 장소도 지정된 곳에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붕어빵 장사를 하면

서 분식집 허가를 내는 것도 전국 최초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서 하라고 하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누가 고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최광호 기자**

참빛동아리·고성중고바이애슬론팀 표창

고성군자원봉사센터, 2011년 고성군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고성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황재철)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고성문화회 집 3층에서 자원봉사자, 초청인사,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고성군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대회는 식전행사에서 2011년 한 해 동안의 자원봉사활동을 담은 사진전시회를 갖고,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되돌

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거진어린이집과 기로봉사단에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영상물 상영, 자원봉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와 군수·의장 표창, 자원봉사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올해 자원봉사 유공(단체)자는 총 31명으로 강원도지사 단체 표창은 참빛동아리 등 2개 단체, 개

인표창은 수난구조대 회장 박세진씨 등 5명, 고성군수 단체 표창은 고성중고바이애슬론팀 등 2개 단체, 개인 표창은 현사현 회원 유재일씨 등 4명이 받았다.

고성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오늘 행사가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군민들의 열정적 에너지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속초소방서 수난안전교육 실시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속초 청호해수욕장에서 동절기 수난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대형 수난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수난안전장비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된 이날 훈련에는 119구조대원 및 소방서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내용은 잠수장비 및 구조보트 조작 훈련 및 운행, 수상인명 구조훈련, 구조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숙달 훈련,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이 이뤄졌다. **최광호 기자**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LG이노텍(01107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2011년을 마무리하고 2012년을 준비할 시점에 이르렀다. 잠시나마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올해 글로벌 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인해 변동성이 유독 심한 장세가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었다. 유럽 재정적자와 관련된 악

재가 많이 희석되고 있고 각종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자칫 망망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투자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며 서두르지 말고 유럽 재정적자 관련 후속 대응책 등을 확인하면서 투자 시점을 저울질해도 나쁘지 않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차라리 2012년을 기약하며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잠시 쉬는 것도 좋다. 유럽 문제가 해결 기대감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못미더운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시장은 지수관련 우량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 일부 종목들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강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흐름

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코스피 시장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 유망 종목을 선별하는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

오늘은 LG이노텍(011070)을 소개하고자 한다. LG이노텍은 LG전자 계열사로 종합 전자 부품 제조 기업이다. 삼성에는 삼성전기가 있듯이 LG에는 LG이노텍이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생산품목으로는 LCD 모듈을 비롯해 발광다이오드(LED), 카메라 모듈 등을 꼽을 수 있다. LED 부문은 업황부진 및 라인 증설 등으로 지금은 적자 사업이지만 2012년 이후 가동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폭의 흑자 전환도 기대된다.

특히 아이폰4 및 아이폰4S 휴대폰용 기판인 HDI를 공급하고 있어 향후 아이폰5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스마트폰 관련 부품 출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예상 순부채비율이 137%에 이르는 등 취약한 재무구조 탓에 적정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은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가치 역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